

싱가포르 중등학교,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 (Full Subject-Based Banding) 도입

I. 배경

싱가포르에서는 학생들이 초등 졸업시험 점수를 기반으로 속진 과정(Express), 보통 인문 과정(Normal Academic), 보통 기술 과정(Normal Technical)의 세 종류의 중등 과정에 진학하고 있으며, 세 중등 과정의 재학 기간 및 교육 내용은 각각 다르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의 특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특성에 맞춘 교육을 시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속진 과정 진학을 위한 지나친 교육열을 불러일으키고 학생의 미래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정된다는 문제점을 앓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1세기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 및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 교과목별로 학생 개인별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교육과정 운영 (수준은 3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3단계를 넘어서는 일부 우수 학생을 위한 그룹 수업 운영 가능)

II. 주요 내용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의 도입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키우고 본인만의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만 속진 과정(Express)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등학교에 입학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이 본인이 진학한 과정과는 별개로 본인이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는 과목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발맞춰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초등학교 졸업시험 평가 방식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같은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의 개인 및 교과목별 수준 차이를 인정하여, 학교는 교과목별로 각기 다른 수준(G1~G3)으로 그룹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Subject-Based Banding)은 2019년부터 일부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수학·영어·모국어 등 주요 교과 외에도 예술, 인성 및 시민 교육, 디자인과 기술, 식품 및 소비자 교육, 음악 및 체육 등의 과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3단계 수준(G1~G3)보다 높은 수준의 그룹 학생을 위한 고난이도(high level) 그룹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중등학교 수준에 따라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개별 수준 및 적성에 따른 본인만의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024년에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도입을 위해, 이미 2020년부터 28개의 중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교과·수준별 그룹학습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2021년에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채점 방식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에 맞추어 개선하였다. 앞으로 점차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을 운영하는 학교를 늘려 2024년에는 싱가포르의 모든 중등학교가 해당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2027년부터는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방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국가 단위 중등학교 졸업시험을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대학을 입학하게 된다.

○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도입 경과

1. 중등학교 계열화

- 싱가포르에서는 1970년대에 많은 학생이 초등학교를 마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중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여 학습 속도를 학생에게 맞추기 위해 1981년부터 현재의 3개 계열(속진 과정, 보통 인문 과정, 보통 기술 과정)로 나누어지는 중등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2. 일부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Subject-Based Banding) 도입

- 2014년부터 영어, 수학, 과학, 모국어 과목의 경우, 본인의 성취 수준에 따라 수업을 이동하여 수강하는 수준별 그룹학습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중등학교 진학 후, 성취 수준에 따라 본인의 진학한 계열보다 높은 단계의 영어, 수학, 과학, 모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준비 단계

- 2017년과 2018년에 실시된 예비대학 입학시험에서 일부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을 경험했던 학생들의 고무적인 입시 결과와 함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8개의 중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을 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4.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 2024년부터 전체 중등학교에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이 도입된다. 이는 중등교육 시스템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며, 학생들은 수준별로 모든 교과목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중등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만족시킬 것이며, 모든 아이는 개인별로 본인만의 교육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계발하고 삶의 잠재력을 충족시킬 기회에 지속해서 접근할 것이다.

○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 2024년부터는 현행 영재 과정, 보통 인문 과정, 보통 기술 과정으로 나뉘는 중등 과정의 계열화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른 계열화된 중등학교에서 정해진 하나의 교육과정이 아닌, 개인별·교과별 수준에 따라 G1, G2, G3의 3단계 그룹에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2. 학생들은 수준별로 운영되는 영어, 수학, 과학, 모국어 과목 등 주요 교과별로 본인의 성취도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그룹으로 편성되어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시범적으로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을 도입한 중등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인문 과목(지리학, 역사, 영문학)에 대해서도 G3 단계를 상회하는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3. 학급 구성이 혼합 구성으로 변경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수업을 조직하는 방식을 바꾸고, 학생들이 그들의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학생들은 그들의 강점과 관심사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4. 학생들은 교육과정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에 미술, 인성 및 시민 교육, 디자인과 기술, 식품 및 소비자 교육, 음악, 체육의 6개 교과를 수준별 그룹으로 수강하게 된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같은 과목에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법을 차별화할 것이다. 학생들은 성취 수준에 따라 교과별로 다른 반에 편성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장점과 관심사에 따라 더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에 더 많은 자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5. 2026년까지 학생들은 현행 예비대학 입학시험인 GCE O-, A-Level 시험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2027년부터 학생들은 본인이 수강한 과목의 수준(단계)을 반영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수준 중등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III. 시사점

싱가포르 교육은 조기에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로 본인에게 적합한 중등 과정에 진학한다. 하지만 이는 중등학교 계열화 및 속진 과정 운영 중등학교로의 진학이라는 지나친 교육열과 조기에 학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논란도 가져왔다. 이에 싱가포르는 미래사회에서는 학교 계열화에 따른 획일화된 교육보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 교과 수준별 그룹학습(Full Subject-Based Banding)을 전체 중등학교에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성취 수준에 따라 본인만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많은 미래 학자들이 예고하듯, 미래사회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행보는 우리 교육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출처 및 발표일

싱가포르 교육부(2020)

<https://www.moe.gov.sg/microsites/psle-fsbb/full-subject-based-banding/main.html>